

[특집 — 한글번역]

국제화 시대와 중국 문학의 역할

The Globalization Era and The Role of Chinese Literature

이에 메이 Ye-mei

(중국, 소설가)

제 삶에 있어서 한국 문화는 매우 친밀한 존재입니다. 비록 제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비교론을 특별히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사용되는 문어만을 놓고 볼 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많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유구한 역사적 길을 걸어내려 오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적 배경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제게 점점 매력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문학과 삶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옛 한국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 문학축제를 개최하고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준 김은정 교수와 김종희 교수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난 반세기 이후 급속한 근대 과학 기술의 발전, 전세계적인 경제 통합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인

터넷 같은 전송 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미 폭 깊은 변화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많은 영역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에 부딪히고 있다. 1960년대에 셰익스피어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그는 아마도 영화 제작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영국의 소설가 존슨(B. S. Johnson)은 『비망록을 쓰기에는 너무나 어린 당신 (Aren't You Rather Young to be Writing Your Memoirs?)』의 서문에서 “1909년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에 첫 영화관을 열었다는 것은 금세기 소설의 역사에서 중대한 중요성을 갖는 사실이다”라고 언급한다. 사람들은 “이론의 죽음”, “비평의 죽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학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한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의견과 대답이 제시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주제들을 위해 토론을 확장함으로써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동시대의 문학이 실제로 이미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견줄 수 없이 훌륭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와 더불어 무수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만 말해두고 싶다. 그 결과 문학이 하는 역할은 이미 주변화되고 어릿광대짓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악마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의 문학에 내포된 함정들과 여러 역할들 간의 논쟁을 통해 문학의 기능에 대해 여전히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나온다.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소음과 다양한 색깔로 가득 차 있던 1970년대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작품을 출판해온 중국 작가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려한다. 나의 글이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체 이 세상에 대해 나의 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할 나의 주제는 “세계화 시대와 개인적 독백”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중국,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든 간에) 좋은 작가로서 여러분은 세계 내에서의 실존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곳으로 세계화가 확산되고 스며드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가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문학적 글쓰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독백이다. (독창성을 포함해서) 혁신과 국민적 성격(national character)뿐만 아니라 관용적이고 초월적인 인간애를 통해 문학

은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쩌면 너는 천재는 아니지만 너의 글이 진정으로 네 가슴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문학의 방향이 거리감이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문학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첫 번째 지점은 그 독특한 창의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매매될 건물이나 여성을 1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캡슐을 홍보하기 위해 언제나 규칙적으로 정돈된 짧은 문구가 씌어진 가지가지 색의 전단지를 누군가가 베이징 거리에서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문학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문학의 역할이 확장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존 바스(John Barth)는 그의 에세이 『소진의 문학(The Literature of Exhaustion)』에서 보르헤스를 인간 존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대단히 창조적인 작가로 높이 평가했다. 산업화의 기미가 충만한 시대에 사람들은 ‘인공적인’ 창조 대신 독창적인 예술적 창조를 자신도 모르게 선호하게 된다. 독창성은 오직 삶에 대한 작가들의 독특한 감정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

작년 연말 어느 날 나는 텔레비전에서 수메르 문명을 보았다. 고대 문명의 하나인 수메르는 고대 중국 문명과 더불어 유명하다. 그러나 20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 태양의 광채처럼 금빛을 띄는 단 몇 개의 온전하지 않은 모래 성벽과 단 하나의 검은 돌기둥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신비로운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 권위의 왕들과 땅을 흔드는 전쟁들이 날아가는 재와 연기처럼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모래 성벽과 돌기둥에 새겨진 인물들만 남아 그들이 한 때 누렸던 광휘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 누구도 세월의 휩쓸림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과 시간이 정말로 유수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장면들이 지난 후 그것은 마치 금빛 모래 성벽이 여전히 새로워 보이는 것과 같다. 고대인들이 손을 댄 손도장은 어제 한 것처럼 선명하다. 그리고 단지 남아있는 모래 성벽을 통해 한때 젊었던 고대인들의 얼굴과 우리를 구분한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혹은 2000년 후 사람들은 오늘을, 예를 들어 2008년을 어떻게 바라볼까?

고대 중국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 놓았다. 우리는 그 중의 일부를

반복해서 곱씹은 후에도 소화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했다. 아마도 우리는 수메르의 검은 돌기둥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도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람들은 인간의 생활환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문학의 생산도 그러할지 모른다. 나는 나 자신의 글을 신중하게 다루어왔다. 나는 이전에 『마음으로 쓴 글(I Write with My Heart)』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썼다. 매번 독창적인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창작은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추상화하는 작업을 요한다. 나는 10대에 문화혁명과 만났기 때문에 때아니게 교육을 중단해야 했고 물리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 시골에 가야했다. 말하자면 나는 내 손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돼지와 닭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후에 나는 상당한 시간동안 농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들의 가난을 보고 나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비탄에 잠겼을 때 나는 무척 슬펐다. 나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몹시 걱정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쫓겨난 여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동굴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아파트로 이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제외하고 내 가슴을 더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진 펜이었다. 남성 중심의 담론 세계에서 여성의 문제들은 분명히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나의 첫 소설 『시앙 치(Xiang Chi)』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는 농촌 처녀에 관한 것이었다. 이 후에 내 소설 중 적지 않은 수의 작품들이 여성의 운명과 관계된 것이었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만장일치의 문화와 국민 문화의 상실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나는 문학이 민족성의 뿌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중국 작가 협회(Chinese Writers' Association)의 회의실 소파에 앉아 아일랜드 작가 휴고 해밀튼(Hugo Hamilton)이 우리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밀튼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누구에게도 영어나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열렬한 아일랜드

인이었다. 그러나 케익을 만들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면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은 그런 식으로는 케익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부엌 바닥에 선이 그어진 것이다. 독일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선의 한 쪽에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아일랜드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꼬마 해밀턴은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하는 당혹스러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그의 소설 『점박이들(The Speckled People)』과 『옷장에 있는 선원(The Sailer in the Wardrobe)』에서 그러한 종류의 경험을 기술했다. 해밀턴의 소설이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그의 소중한 이해를 표현했고, '만장일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예리한 판단을 제시했으며 두 가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세계의 절충에 따르는 어려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화 중에 해밀턴은 “여러분들(중국 작가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중국에는 56개의 인종 그룹이 있고 고대 이후 다민족 문화들이 상호 충돌하여 상호 흡수되어진 상태에 있다고 해밀턴에게 말했다. 나 자신을 예로 들어 나의 아버지의 고향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으로 유교가 가장 대중적인 것이 된 산둥 지방이고, 반면 나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중국의 낭만적 시인 굴원(Qu Yuan)이 태어난 양쯔강의 삼협곡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이어서 해밀턴에게 ‘나의 부모님의 문화적 배경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나의 부모님이 함께 살았을 때 두 분은 많은 시간을 싸우면서 보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민족적 코드를 수용해야만 했다. 내 피에 흐르고 있는 민족적 코드들은 서로 의존적이면서 서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융합했다.

토가족(Tujia nationality)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바산(Daba Mountain)과 우링산(Wuling Mountain)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해 삼협곡 지역에 살았다. 바슈(Bashu) 문화, 주(Chu) 문화, 그리고 주술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들의 이 곳에서 섞인다. 최근의 고고학적 결과물은 2백만년 전에 이 곳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입증하고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비롯됐다는 이론을 반박했다. 청 왕조(Qing Dynasty)는 1723년부터 1736년까지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의 제후를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지방 소수

민족의 세습 총장을 임명하는 낡은 시스템이 왕실이 지방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토가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다민족간의 문화적 통합이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토가족의 문화는 개방적이다. 그리고 토가족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편안하고 낙관적으로 다룬다. 그들은 죽음을 단지 하나의 문지방을 건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슬프게 우는 대신 춤과 노래가 어울어진 장례 행렬에 참가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많은 것들을 다룰 때도 슬며시 넘어가는 것을 택한다.

역사와 민족으로 구성된 훌륭한 문화의 견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닫힌 사회에 그것을 저장해 둘 것인가? 아니면 열린 태도로 그것을 물려받을 것인가? 오늘날 이런 문제는 직업적 성공을 거둔 작가들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나는 나의 소설에서 양체강(Yangtse River)의 삼협곡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그룹의 토속적인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썼다. 나는 소설 속에서 과거 총장들 중 마지막 세대의 친절, 적대감, 사랑과 미움, 산 속에 거주하는 새로운 마을 사람들의 행복, 분노, 슬픔과 기쁨, 그리고 작은 마을에 있는 문학 모임의 삶, 시골에서 도시로의 젊은이들의 이동 등을 다루었다. 모든 소수 그룹의 살아있는 상태와 운명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나는 나 자신의 문화적 모태에 나 자신을 덧붙임으로써 소수 민족의 문화적 비밀을 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나는 산 속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민족적 성격과 문화적 정신을 단호함, 용기, 애정, 공정함, 관대함, 대범함이라 제시했다. 중국 서부 산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토속적인 민족 문화 자원을 파헤침으로써 나는 근대 문명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실질적인 문화자원을 찾고 싶었다. 나의 작품에 대해 비평가들은 “당신의 작품이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 판단할 때 민족적 경험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당신 작품들은 활기가 넘친다. 예를 들어 『사요의 용선강(Sayo's Dragon Boat River)』이라는 중편 소설에서 끈질기고 감상적이지만 그러나 보기 흉하지 않은 사랑과 복잡한 삶의 방식들이 강한 동시대적 스타일로 그려져 있다. 아이디어의 진실성의 견지에서 그것은 도시에서의 현대적 사랑에 의해 표현된 진부하고 거짓된 인위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

다”(Li Junguo, 『시적 글쓰기(Poetic Writing)』)라고 지적한다.

분명히 문학이 세계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간 앞에 놓인 환경의 끔찍한 붕괴, 전쟁과 질병의 만연,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무너짐과 같은 모든 종류의 난제들이 문학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문학은 단지 고통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위로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의 기능을 확대할 수도 없고 시간의 이방인이 되어줄 상아탑으로 물러나기 위해 우리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다. 옛 중국 속담이 말하듯, “인내가 성공을 일군다.” 동시대와 대면할 때 좋은 작가는 자신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내와 초월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99개의 계단을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 “99개의 계단 오르기”는 토가족의 언어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걷고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산 속 동굴(A Cave in the Mountain)』이라는 소설에서 보물찾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색을 보여주었다.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발전과정에서 인간은 실제로 끊임없이 탐색해왔다. 그러나 반복된 탐색 이후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본래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이 지속되고 인간은 생각을 멈추지 않으며 역사에 대한 경험은 쉽없이 축적되고 안정된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복잡한 것은 사실상 가장 단순한 것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시기에 놓인 문제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내 소설에서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통합을 여러번 기술했다. (문화적) 통합은 가장 치열하고 거의 비극적이기까지 한 충돌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휴머니즘적 관심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세계화와 대면할 때면 언제나 연관되는 또다른 주제는 도시, 낯선 땅과 고향이다. 모든 농촌 사람들을 사랑스럽고 힘이 세며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들로 묘사하는 반면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저속하고 위선적이며 잘 속이며 속물적인 사람들로 묘사할 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낯선 땅’은 대단히 끔찍한 장소다. 그래서 “농촌은 아름답지만 도시는 추하다”, “토착적인 땅은 좋지만 낯선 땅은 나쁘다”라는 하위 의식이 만들어졌다. 나는 루

마니아의 흑해 근처에서 열린 세계문학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문학 축제의 주제는 “지구촌에서의 고독”이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미시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우리가 인간존재의 타고난 고독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참조할 외부적 대상이 없는 우주 속에서 고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마음에 사무치는 고독과 비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낯선 땅’의 외로움은 실제적으로 표면적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놀라운 방식으로 점점더 큰 범위로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씩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면서 민족의 어떤 경험들은 사라지거나 확장되며 왜곡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변화된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5월의 나방(Moths in May)』에서 자오 누(Zhao Nu), 에어 메이(Er Mei)와 타오 짜(Tao Zi) 같은 여성 노동자들을 묘사했다. 비록 그들이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입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도시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며 더 이상 시골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 영원한 고독과 표류가 그들의 운명이 된 것 같다. 도시 문화가 이러한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변화된 사람들 또한 도시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상 급속히 변화하는 시간과 중국의 실제 삶은 문학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또다른 점은 우리가 글쓰기를 보다 시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토가족은 다신 숭배를 한다. 양체강 삼협곡의 산악 지대 곳곳에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굴원이 『천문(Inquiries of Heaven)』에서 말하고 있는 고뇌부터 주술사들의 신비스럽고 이상한 접신에 이르는 신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존재한다. 산에는 산신, 물에는 물의 신, 우리가 일할 때는 땅의 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는 문간 신과 부엌 신이 있다. 산과 계곡에서 살면서 삼협곡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하는 법을, 그리고 신과 정령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땅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하늘과 휴머니즘의 조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적이고 신비로우며 강력하고 낭만적인 방식을 취해야한다. 노자(Lao Zi)와 장자(Zhuang Zi)부터 초나라 문화의 고향에 이르는 모든 시대에 흘러넘치는 풍부한 시적 아름다움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중국 문화의 축적은 다채롭고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다. 그러나 충동적인 상태에서 혹은 나태한 상태에서 오로지 소위 말하는 '서사' 혹은 사소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중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포기하거나 퇴색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보물 상자만을 과시하기 위해 보물을 남겨 놓은 것과 같이 수치스런 일이다.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재이용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의 문학예술 모임들은 분명히 이용될 가치가 있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사이에 우리는 디지털 정보의 시대에 의해 초래된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문학에게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문학 창작은 상상력의 날개를 표준화시키고 무제한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배척해야만 한다. 오로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후손들이 의지하고 갈망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고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조들의 언어를 보호하고 물려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5호 2008.06. pp.281~291

(a special edition)

Literature in the Age of Internationalism

Uday Prakash
(IND, Novelist)

Our language can be seen as an ancient city; a maze of little streets and squares, of old and new houses, and of houses with additions from various periods; and this surrounded by a multitude of new boroughs with straight regular streets and uniform houses.

Language is a labyrinth of paths. You approach from one side and know your way about; you approach the same place from another side and no longer know your way about.

*-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1*

If literature is a verbal art form and if we accept it as an objet d'art of

creating infinite possible architectures and structures in speech by an author, this quote coming from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ilosopher investigating the cryptic logic of language and mind, is of great help to understand the role and fate of literature in the age of globalizing or almost globalized (Internationalizing or almost Internationalized, we may call) world we live in.

From another point of view, what Wittgenstein had said, stands true to all works of language, from the time of epics and novels to newspaper stories and advertising copies, from poetry to a political party's manifesto, a corporate media campaign and to a scripture. However, there is always a very thin line of 'ethics', 'aesthetics' and 'concerns' which often separates literature from other constructs of the language. This we can feel if we look back to Wittgenstein's time again, when he wrote these sentences. In a tormented and traumatized soul after the First World War's catastrophes, his ascetic deviation from a turbulent power-capital centric world towards an exiled space of 'abstinence', 'ethics' and 'religion', he wrote his masterpiec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nd attempted to explore and discover a 'logic' under it. And while doing so, in my opinion, Wittgenstein was not working as a philosopher of language, but he was exerting himself in the language as an author because 'author is the last philosopher of the book' as said by Derrida. Literature succeeds in providing an alternative world, a different space and time because:

'Writing requires a break, with thought when thought ascribes to itself immediate proximity, a break with all empirical experience of the world. In this sense, writing is also a rupture with all present consciousness, being always already involved in the experience of the non-manifest or the unknown...' *2

This 'point of rupture' with the 'empirical experience' and 'present consciousness' empowers literature, an objet d'art of language, to play its own role with its own power, in a world dominated and occupied by the other powers with their other roles. In a way, writing is 'returning to a time before world and reaching to a time after the world'. It is speaking in language already spoken in elsewhere but with words, which reveal nothing, or something else. Writing is creating 'signs' which confront all other 'signs' manufactured and perpetuated by other powers through all possible technologies and affluence in world.

And it is here that literature attains its autonomy, emancipates itself to a privileged-private place. From here it might know about its own role, which only words can play. But then there is another crisis. As a famous proverb says - 'there is no inside whale to hide' from the catastrophe and onslaughts of violent powers of greed and destruction. After all language is a product of world of reality. Therefore 'word' itself can never remain unscathed. Words are used, abused and exploited by the powers of reality. Words are wounded and contaminated. Recently in my trip to US, I bought a new collection of poems of Tadeusz Rozewicz, my most favorite Polish poet and was astounded to understand about another sphere where global forces might inflict injuries, the sphere of words:

Words have been used up
Chewed up like gum
By lovely young mouths
Have been turned into white
Ballon bubbles

Diminished by politicians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5호

They are used for whitening teeth
and for rinsing out of mouths

in my childhood
words could be
applied to a wound
could be given to the one
you loved..’ *3

This poem’s concern about the basic nuclear component of poetry itself, in a lamenting spirit, reveals about the encroachment and invasion of techno-market-centric powers on language through everyday renewed technology. It consumes and exploits all verbal structures and manipulates and moulds them for its own tasks. The industrialized, commercialized capitalist world has become an outside world with invincible material connections and associations, and the individual (here poet) is living in the midst of that world.

If we probe this new world, it is ‘post industrial’ or ‘post-modern’ as it is generally defined and explained by sociologists and scholars. There are few who name it ‘post-colonial’ and there are others who term it as ‘neo-colonial’ or ‘late-capitalist’. There are few younger journalists and activists, who admit that now we all, irrespective of our nation and profession, have become ‘Citizen of Empire’. *4. The poem of Tadeusz Rozewicz, I have quoted above talks about the fate of word in context of this specific time which has arrived since the last couple of decades of twentieth century.

And indisputably this is the era of ‘globalization’ (or internationalization, as per topic of this seminar paper). It is typically defined as a time in which

the sovereignty of nation states has declined and modes of exchange operate with increasing ease and speed across national boundaries, producing configurations of power that excee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It is said to have been 'born' with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and the subsequent collapse of USSR as socialist super power and end of the Cold War. It is now a world of reality and virtual reality where an individual breathes and survives alienated from it and from himself. Most of the writers of the peripheral nation states or the third world countries or the developing countries witness this new 'disni-fied', 'McDonaldized' or 'pizzahutted' *5 world on one hand and a world with 'carpet bombing' and bio-genetic terminator seeds and WMDs on the other hand, with instinctual skepticisms. The familiar world, they used to know, has become estranged and altered.

'A reality belonging to the day before yesterday, a reality that long ago became its own ghost, is being conserved in rigid framework of phrases, prejudices, and hypocrisy. The end product of a vast machinery of research, investigations, analyses, statistics, conferences, reports and headlines is the comic strip, the embodiment of an illusory world of Everyman and No-man. Illusion displaces contradiction. The outcome of a multitude of 'point of views' is a hideous 'uniformity' of minds.' *5

This perception now appears a bit stale. Scenario now is much more changed and complex. As a result of multiplication and advancement of media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cybernetics what Walter Benjamin had said in his most famous essay,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or what Karl Kraus wrote about the printing press or Bertolt Brecht wrote about Radio, now appears stale, clichéd and sometimes juvenile. No other civilization in the past, had used and produced language itself in such a mammoth quantum. Just look around, it's a big noise. Every channel and every electronic gadget, small or huge, is

churning out language and converting it in to 'chatter' where words don't posses any meaning. A language is reproducing itself, a language without truth, an endless meaningless chatter.

Language used and consumed for lies, biggest in it is the global industry of advertising. This is not merely the language of 'Double Speak' as George Orwell had thought in his dystopic prophecy of a totalitarian state. Liars of the past, Big Brothers and Goebbels appear tiny and dwarf when we witness colossal lies televised, screened, shown, thrown on masses, because the mind of the masses has to be manipulated through the power of 'words' and 'images'.

In Samskrit, 'pada' (word) has been conceived as Lord 'Shiva' and 'artha' (meaning) as Goddess 'Parvati' or 'shakti'. They were thought to be inseparable; any act of splitting them apart would have been a blasphemy. Everyone living on earth, which uses 'pada' (words) for his interest, is warned to have a restrain over using it excessively. Restrain and control in consuming and producing speech (Vaak samyam). It was thought that this universe has been born from the explosion of 'nada' (boom/ sound) which is the base component of speech or language. Poem is also born in the same manner like an universe. Through the explosion (sphota) of word (pada) meaning (artha) is produced which in a serial explosions of following words, form a sentence (vaakya) and through this process a poem (kavya) is born. This is what Bhartrihari had said in his treatise. It appears now, on the face level, an enigmatic, irrational, pre-scientific and obscure theory of genesis of a poem or an universe. But Derrida in his Grammatology tells similar things in a little different style.

Now, if we look back again to the poem of Tadeusz Rozewicz, where we

see that the 'words have been used up like chewing gum' by 'lovely young mouths' (of tv news anchors) and 'diminished by politicians' for 'whitening their teeth', then is it really possible now to compose a poem using same 'used up', 'diminished' words?

What after all a poet should do when a huge, demonic global commercial-political industry is using and manufacturing mammoth quantum of words every fraction of second? And that all for nothing but in advertising its product or lying to consolidate its power?

But, there is a hope. I now quote the last remaining lines of the poem:

'Now diminis hed
Wrapped in newspaper
They still contaminate
Still reek
They still hurt

Hidden in heads
Hidden in hearts
Hidden under the gowns
Of young women
Hidden in holy books

They burst out
They kill.' *6

And here is a hope for a writer or for literature to perform its role in a world where spaces for individual object de-art is shrinking every day. Word

can still play a role. Word is 'power inscribed in language' so it holds a power, where all outside powers cease to exist.

But there is another plane wher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sm is more concrete and physical. A strong storm of homogenization of cultures on international scale is on since the incoming of this 'post-modern' or 'post-cold-war' era. Peripheral countries and developing societies do not have any other option except adopting and accepting the economic policies and model of 'development' dictated by the rich countries of west, led by US and laid dow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MF and the World Bank. India too is a country, with its multiple cultural-ethnic societies and sub-nationalities, which are undergoing through a complex and turbulent, process off late. In India, particularly, we witness a fierce resurgence and re-assertion of micro ethnic identities on rise and conflict since last few years. What Samuel Huntington had prophesied in his infamous book, contrary is the present scenario. These are not the 'civilizations' which are clashing against each other, these are much smaller cultural, linguistic, ethnic, religious identities which are indulging in violent conflicts every day. Homogenization through mass consumer culture, riding on the multiplied media campaign and dumping of luxury products in the indigenous market, from cars and bikes to fast food and fashion, is consequently developing in to balkanization of a post-colonial nation-state than homogenizing and integrating it.

Recently, I have read a paper by Girish Mishra, a noted Indian scholar, I quote a portion below to elaborate my point of view:

'Fukuyama rejects the view that globalization is leading to cultural homogeneity. There may be homoge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the economy and the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there will be an affirmation of distinctive cultural identities. If the

process of cultural homogenization takes place, it will be too slow to discern. "Many people think that because we have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are able to project global television culture worldwide, this will lead to homogenization on a deeper cultural level. I think that, in a way, it's done just the opposite.

"For example, there is probably less mutual liking, more distrust and greater empha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es of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day than there was 40 years ago. In the 1950s and '60s, Asia looked up to the United States as a model of modernization. Now, Asians look at American urban decay and the decline of the family and they feel that America is not a very attractive model.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allowed both Asians and Americans to see each other more clearly, and it turns out they have very different value systems.' *8

One need not agree with this geo-cultural estimation of growing distrust between Asia and the West or the US, here does come a perturbing question about the state of minor, lesser developed, poorer and deprived human groups in this process of global homogenization. Accumulation of wealth in a small section of people where more than 40 percent of population lives much below poverty line and 60 percent of it does not have access to health, education, sanitation and towards basic civil amenities, any such 'modernization' stands fake and farcical.

Literature again becomes an arena, where the voices of the diminishing cultural identities and suffering subjugated masses can be heard. Literature, if resist to get itself commoditized by the alluring offers from the market, can unambiguousl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testing times.

In my opinion in the age of end of all adolescence, in the age of dystopia and chattering ideologies, it is literature alone, which through its murmur of

words and fragile sentences, can act as a vanguard of suppressed identities and individuals. Because literature has an ability to create a critique and a comic versus any hegemonic power, out to dominate and subjugate smaller beings on planet. Words are the Gods of small things. They remain immortal and defy their death. Words can laugh, cry, ridicule, mimic and dance against all forms of violence of powers, anywhere.

‘Writing is the beginning of a mass gesture: against all discourses (modes of speech, instrumental writings, rituals, protocols, social symbolic), writing alone today, even if still in form of luxury, makes of language something
a-topical, without place.’ *8

Therefore, it is literature, which is finally ‘Internationalist’, not the market and never the politics.

Words remain eternal even after the world.

I request you to recall the beginning of this paper, where I had put a quote from Ludwig Wittgenstein, to explain about the role of an individual writer and poet in the ancient city of language named literature, now I end this paper with a few words from Mahatma Gandhi, the father of post colonial independent India:

‘I do want that the winds from other cultures should enter in to my house, and I have let my doors and windows open to receive it, but I do not want that my foot gets uprooted, lose my balance and I get blown away with the winds. No way I want to go to the other’s house begging as a slave and no way I want to live like a emulator..!’ *9

- *1-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Post-Modernism-Philosophy and the Arts, Edited by Hugh J. Silverman, Chapter 5, 'In Situ: Beyond the Architecture of the Modern', Stephen H. Watson p.p. 83, Published by Routledge, 29 West 35th Street, New York-10001.
- *2- Mark C. Taylor, 'Back to the Future' . Ibid. p.p.15
- *3-Tadeusz Rozewicz, New Poems, Published by Archipelago Books, 25 Jay Street, #203, Brooklyn, New York 11201. (2007)
- *4-Robert Jensen, 'Citizens of the Empire: The Struggle to Claim our Humanity', City Light Books, 261 Columbus Avenue at Broadway, San Francisco, CA 94133, 2004.
- *5-Ernst Fischer, 'The Necessity of Art', Translated by Anna Bostock, Penguin Books, 625 Madison Avenue, New York-10022, p.p. 203
- *6-Tadeusz Rozewicz, New Poems, Published by Archipelago Books, 25 Jay Street, #203, Brooklyn, New York 11201. (2007)
- *7-Girish Mishra, 'Globalization and Culture,' yet to be published, 2008.
- *8-Roland Barthes, 'Writers, Intellectuals, Teachers', Selected Writings, Edited by Susan Sontag, Fontana Paper backs, p.p. 401, 1983.
- *9-P.C.Joshi, 'Parivartan aur Vikas ke Sanskritik Aayaam', Rajkamal Prakashan, New Delhi, p.p.67, 1987